방탄소년단, 日 영화·드라마 참여 왜?

일본시장 특성 공략…BTS식 '위로 메시지'

'시그널' 일본 리메이크 버전 주제곡
10월엔 영화 '너의 눈이' 주제가도
타이업 프로모션 통해 일본속으로



그룹 방탄소년단이 tvN 드라마 '시그널'을 리메이크한 일본영화 '시그널:장기미제사건 수사반'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주제곡을 부르면서 일본 팬들과 교감하고 있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의 신곡 '라이프 고즈 온'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영화와 드라마의 수록곡과 주제곡으로 현지 팬덤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각 멤버들의 개인적 인연이나 현지 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방탄소년단은 한국드라마 '시그널'을 리메이크해 내년 4월 현지 개봉하는 일본영화 '시그널:장기미제사건 수사반'의 주제곡을 맡는다. 영화는 2016년 김혜수·조진웅·이제훈이 주연해 무전기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의 형사들이 교감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tvN 드라마 '시그널'을, 2018년 일본 후지TV 계열사 간사이TV가 리메이크한 드라마의 스크린 버전이다.

방탄소년단은 당시 드라마 주제곡 '돈트 리브 미'(Don't Leave Me)를 불렀다. 뒤이어 드라마와는 또 다른 영화의 새로운 주제곡까지 맡기로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올해 10월 현지 개봉한 영화 '너의 눈이 묻고 있어'의 주제가 '유어 아이즈 텔'(Your Eyes Tell)을 불렀다. 영화는 2011년 소지섭과 한효주의 멜로영화 '오직 그대만'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또 7월에는 TV도쿄 드라마 '나선의 미궁:유전자 수사'의 주제곡 '스테이 골드'(Stay Gold)를 선보였다.

영화 '시그널:장기미제사건 수사반'의 경우, 두 작품의 주연인 사카구치 켄타로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쌓아온 우정으로 눈길을 끈다. 사카구치 켄타로는 2018년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미팅에 게스트로 참여했고, 2029년 12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는 시상자로 나서 이들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멤버 제이홉은 그와 식사하며 친근한 우정을 표하는 모습을 SNS로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지민은 '너의 눈이 묻고 있어'의 원작인 '오직 그대만'을 평소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로 꼽아왔다. '막내' 정국이 리메이크작의 각본을 보고 '유어 아이즈 텔'을 작사·작곡했다.

이들은 각 노래를 일본 앨범에도 수록했다. '유어 아이즈 텔'은 7월 일본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더 저니~'에 담아 오리콘 등 현지 차트 1위에 올랐다. '스테이 골드'도 수록곡이다. '돈트 리브 미' 역시 2018년 4월 정규 3집 '페이스 유어셀프'(FACE YOURSELF)에 담아냈다.

신곡을 일본에서 선보이며 영화·드라마의 삽입곡과 주제곡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Tie-up'(타이업)으로 불리는 프로모션의 하나로, 애니메이션 등 영화와 드라마, 게임 주제곡과 삽입곡 등이 꾸준히 인기를 모으는 일본시장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대중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꾸준히 전해온 자신들의 '세계관'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유어 아이즈 텔'에 대해 정국은 "힘겨움 속에서도 너의 눈동자가 보고 있는 미래에 빛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정의동 동물모형 조형 작가가 토종 고래 상괭이를 알리는 '상괭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다양한 패션 제품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 비토우

'하트시그널3' 정의동이 만든 상괭이 문양 상품 화제

와디즈 통해 티셔츠·액세서리 론칭
웃는 고래·미소 고래 등 재해석 눈길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자인 정의동 동물모형 조형 작가가 '상괭이 프로젝트'(Smiling Whale Project)를 시작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패션브랜드와 손잡고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는 방식이다.

정의동 작가는 최근 패션 브랜드 비토우와 협업해 상괭이 문양을 넣어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와 액세서리 등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론칭했다. 독특한 입꼬리 모양 때문에 '웃는 고래', '미소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의 입 모양을 재해석한 디자인과, 목도리를 두른 상괭이 그림이 눈길을 끈다.

상괭이는 2m 길이의 회백색 돌고래로, 주로 서남해안에서 서식하고 있었지만 2011년 1만3천여마리로 크게 줄어들면서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를 인정받아 지난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상괭이 보전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정 작가는 "어린 시절 멸종 위기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며 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우게 됐다"며 "국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를 알리려 조형 작품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마침 비토우 브랜드와 뜻이 맞아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양수산부가 경남 고성군 앞바다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상괭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며 소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 작가는 '스마일링 웨일 로고 스웨트 셔츠'와 '백 프린팅 스웨트 셔츠' 등을 선보이고 있다. 상괭이 입꼬리 모양을 자수 로고로 형상화한 '스마일링 웨일 로고 스웨트 셔츠'가 기본 디자인으로, 데님 진과 슬랙스 등과 매치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입을 수 있다. '백 프린팅 스웨트 셔츠'는 포인트를 주기 좋고, 고급스러운 면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였다. 오버사이즈로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다.

또 정의동 작가는 '하트시그널'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2021년 초 방송 예정인 '프렌즈'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새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 크라우드 펀딩도 와디즈를 통해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티셔츠는 미디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토우가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한 티셔츠 상품을 선보이는 '티셔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티셔츠를 매개 삼아 패션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간다는 지향을 내세우고 있다. 비토우는 2018년 채널A가 론칭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2.5단계 격상…연예계 '일단 멈춤'
연말 이벤트, 비대면 전환 불가피

거세진 감염병 확산세에 방송연예계도 '일단 멈춤'의 상황을 맞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면서 연기대상과 가요제 등 대형 무대 개최를 앞둔 방송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6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1명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이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일부 음악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트로트가수 이찬원, 그룹 에버글로우·업테션의 일부 멤버 등과 각종 드라마 촬영현장의 제작진 등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미 위기감에 휩싸였던 방송연예계는 방역조치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표정이다.

더욱이 각 방송사가 연말 대형 특집프로그램 편성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미 서울시가 5일부터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화관의 문을 닫도록 하고 시가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영화와 공연 등 대중문화 콘텐츠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방송연예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실제로 나훈아는 최근 부산에 이어 18~20일로 예정한 서울 공연 일정을 취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연기·연예대상과 가요제 등 방송가의 대형 무대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19일 SBS '연예대상'을 시작으로 각 방송사는 31일까지 연기·연예대상 시상식을 생방송할 계획이다. 또 KBS '가요대축제'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대형 음악무대도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열 수 없게 돼 각 방송사는 연말 대규모 무대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감염병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무대를 지켜보는 시청자의 불안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6일 한 관계자는 "톱스타급 연기자와 가수들이 한 무대에 모여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방송사로서는 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각 방송사는 비대면 개최를 전제로 사전녹화 등 연말 대형 무대의 다양한 제작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수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1~10부) 시청 후 문의 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7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 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릴레이기부 품앗이계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중교재단" 등극 !!!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조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영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추영완 010-4741-7008
조현교 010-7374-4111 / 서채윤 010-8770-2935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김용한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시영원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혜덕 010-6258-3510 / 오명숙 010-88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안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 1888 ● 이천 허천석 010-4707-2659
한선희 010-5177-9479 ● 여주 장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왈안드리아 010-3435-0158 / 박우양 010-5221-8119 / 김영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베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1644-6733